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100일 간의 기록을 말하다!

- 청소년을 위한 독도를 비추는 거울 -

접 수 번 호	
학 교 명	양정고등학교
동아리(팀)명	우리역사탐구반('독수청명')

##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 동아리(팀)명 소개

순수 우리말의 동아리명을 선택하려 하다가 우리 역사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따라 '우리역사탐구반'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 '독수청명'은 독도사랑과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 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청소년 명예대원으로 가입한 학생들로 자율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 ○ 동아리(팀) 구성원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김솔빈	2	팀장, 기획, 자료 조사, 영상물 제작
2	원우솔	2	자료 조사, 사진 촬영
3	강정훈	2	자료 조사, 홍보물 제작
4	김호진	1	자료 조사, 녹음
5	우시영	1	사진 촬영, 자료 조사, 연출

##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 활동 주제 : '청소년을 위한 독도를 비추는 거울'

- 주제 선정 이유 :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객관적이게 투영시키는 물건이다. 깨어지거나 먼지가 낀 거울은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희미하게 보인다. 그래서 양정고 '독수청명'은 독도 사랑과 수호를 위해 100일 간의 실천의 여정동안 거울이 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맑게 독도를 세상에 비추기 위한 거울을 만들어 우리는 독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 관점으로 비추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탐구의 거울, 활동의 거울, 소통의 거울 등 거울의 종류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독도 사랑과 수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양정고 '독수청명'이 거울이 되려는 이유이다.

### ○ 활동 기간 : 2018.05.02.~2018.08.17

○ **추진 방법** : 탐구의 장, 활동의 장, 소통의 장을 열어 독도 사랑의 관점을 다양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분화 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 체험관 등의 서울 인근 박물관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 동아리 연합 활동(현장 견학, 토론)추진, 현장 설문 및 캠페인을 통해 독도 홍보 및 각 연령층이 가진 독도에 대한 견해 조사와 고등학생, 대학생, 일본인,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 청소년 희망 수업 실시(교내 강연 및 독도 관련 영상 시청), 인터넷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를 탐구하여 활동 방향 설정, 일본 교과서의 왜곡에 대한 탐구로 실재하는 사료를 직접 다뤄, 일본의 동해, 독도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독도의 역사, 일본 주장의 허구성, 독도 민간단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 독도 수호 활동을 기록하여 양정고 독도 자료집 편찬, 독도 홍보영상, 활동보고서 영상 제작하였다.

○ **활동 내용**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8.05.02	'독수청명'팀 발대식	양정고등학교 역사교실	'독수청명' 대원 30명 중 선발된 5명과 지도교사가 모여 팀 결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독도수호, 사랑 활동을 위한 회의를 진행함.
2018.05.12 2018.05.15	독도체험관 및 서울 시내 박물관 방문	독도체험관 및 안중근 기념관 및 서울역사 박물관	독도 수호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독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체험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전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사전자료를 조사함. 서울 내 박물관들을 방문해 전시관람 및 프로그램 탐구를 통해 독도 홍보 방식과 여러 연령층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독도 사랑 프로그램을 기획.
2018.05.24	동아리 연합 활동	독도체험관 및 양정고등학교	역사 탐구 동아리인 우리역사탐구반과 양정고 청소년 의회 Agora와 연합하여 독도체험관 견학을 통해 독도 알아가기를 진행하였고 교내에서 '독도는 누구의 영토인가?'를 주제로 한

			국, 일본으로 입장을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여 청소년의 견해와 한일 각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립함.
2018.05.25~ 2018.06.08	현장 설문 및 독도 캠페인	양정고등학교 및 파리공원, 목마공원, 교보문고 인근 광장	2주간 등교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정문과 후문, 식당 앞에서 독도 바로 캠페인 및 독도 수호 방안과 청소년 희망 독도 수업을 주제로 설문 진행, 3주간 주말 오후 시간을 활용해 학교 인근 지역에서 독도 알아가기 캠페인 및 독도 수호 방안과 청소년 독도 희망 수업을 주제로 설문을 진행함.
2018.06.20	청소년 희망 독도 수업 (지식채널e 영상시청)	양정고등학교	지식채널e 우편번호 799-805, 1~96번지를 매 수요일 명상의 시간인 여피지기 시간 중 하루를 빌려 방영함. 매 달 한번씩 여피지기 시간에 독도 관련 영상 방영에 관해 방송반과의 합의를 추진함.
2018.05.20~ 2018.07.18	민간단체 탐구	양정고등학교	인터뷰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독도 민간단체들의 활동 방향과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여 우리의 견해와 일반화 가능한 독도 사랑 활동을 기획함.
2018.06.20. 2018.06.02~ 2018.06.29	한일 대학생 인터뷰	페이스북메신저, 양정고등학교	나눔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만난 일본인 대학생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견해를 외교적, 사회적 관점으로 인터뷰 함. 서울 인근 지역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와 외교, 대학生の 견해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함.
2018.06.27	이수광 독도중앙연맹총재 인터뷰	양정고등학교	독도중앙연맹 이수광 총재를 양정고등학교로 초청하여 독도 민간단체의 동향 및 청소년들 나아가 시민들이 해볼 수 있는 독도 사랑 활동과 한일간의 독도 문제에 대한 견해를 인터뷰함.

2018.07.06	청소년 희망 독도 수업 (독도 강연)	양정고등학교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양정고 등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1. 독도, 아름다운 우리 땅 2. 영유권 문제의 독도 3. 우리 땅인 이유 4.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5. 양정의 활동 6. 결론 및 질의응답 내용으로 청소년 강연 진행함.
2018.07.15. ~2018.07.26	일본 교과서 왜곡 (동해 부분) 탐구	양정고등학교	국제 교류 중인 스바루 고등학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4권을 받아 독도와 동해를 다룬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구 함.
2018.07.23	독도 관련 전시 내용 탐구	부산 국립 해양 박물관	팀원 중 1명이 방학을 맞아 부산국립 해양박물관을 방문하여 독도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설명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세계의 고지도를 관람한 후 정보를 공유함.
2018.05.14~ 2018.08.10	독도체험 자료집 제작	양정고등학교	현장 방문과 인터넷 조사를 통해 조 사한 독도 관련 자료들을 독도의 역 사, 일본 주장의 허구성, 독도 민간단 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 독도 수호 활동을 바탕으로 정 리하여 독도체험 자료집 편찬함
2018.07.23~ 2018.08.12	UCC 제작	양정고등학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대중들에게 쉽고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독도 홍보영상과 양정고'독수청명'이 독도 수호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100일의 여정을 담은 영상 제작함.
2018.08.16	활동 종료 및 소감문 작성	양정고등학교	100일의 여정을 형식적으로 종료 후 팀원 전원이 일괄적으로 느낀 점 및 향후 계획 작성함.
2018.08.17	자료 제출		

## ※ 활동사진(참고자료)

### 1. 독도체험관 및 서울시내 박물관 방문



<독도체험관 방문>



<박물관 방문>



<안중근 기념관 방문>

### 2. 동아리 연합 활동



<독도체험관 방문>



<동아리 연합 토론 활동>

### 3. 현장 설문 및 캠페인



### 4. 청소년 희망 독도 수업(지식채널e 영상 시청 및 교내 수업)



<교내 수업>



<영상 시청>

(본인 공개 거부-<한국 대학생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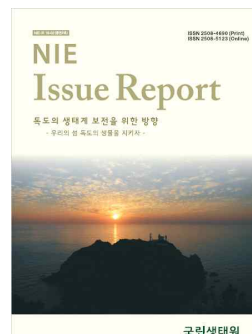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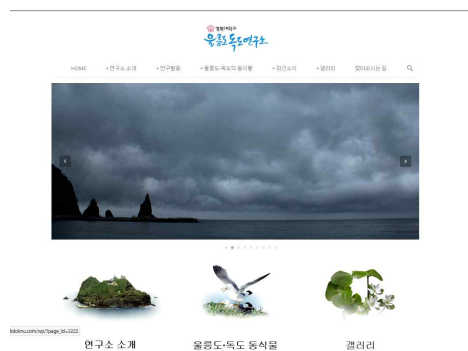


<이수광 독도중앙연맹총재 인터뷰>

(본인 공개 거부-<일본 대학생 인터뷰>)



## 6. 민간 단체 탐구



## 7. 일본 교과서 왜곡 (독도, 동해 부분) 탐구



## 8. 독도체험 자료집 제작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100일 간의 기록을 말하다?**

- 청소년을 위한 독도를 비추는 거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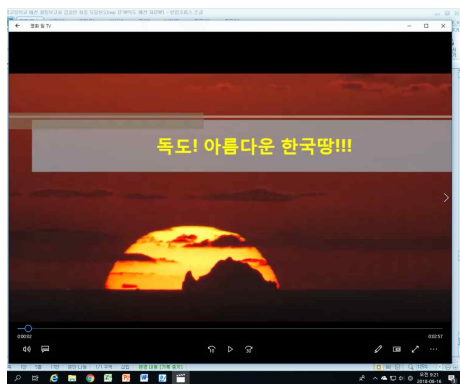


**양정고등학교 우리역사탐구반**

지도교사 : 이투형 선생님

참가학생 : 김슬빈, 원우슬, 강정훈, 김호진, 우시영

## 9. UCC 제작



-YouTube 탑재

##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청소년을 위한 독도를 비추는 거울'을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독도체험 자료집	보고서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주제로 정리한 자료집
3	독도! 아름다운 한국 땅!!!	UCC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다양한 분야{역사, 지리, 사회(실효적 지배)}의 핵심 내용을 추려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정리, '독수청명'이 느낀 독도의 현주소와 독도 수호에 전념하는 민간단체들을 대중들에게 홍보, 이를 UCC 영상물로 제작함.
4	양정고 '독수청명' 활동 보고서	UCC	'청소년을 위한 독도를 비추는 거울'을 주제로 활동한 지난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100일 간의 여정을 활동보고서 UCC로 제작함.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 활동 성과

독도 사랑과 수호를 실천하는 활동을 여러 관점과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서울 인근 지역 시민 400여명의 견해를 독도 수호 방안과 청소년 희망 독도 수업의 범위 내에서 알아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외교 강화와 독도 수업 전개를 효과적인 독도 수호 방안으로, 강연과 영상시청을 효과적인 청소년 희망 독도 수업으로 생각하였다. 방송반과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성사되어 매달 한번, 수요일 아침 시간에 독도를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함. 한일 양국 대학생의 견해를 탐구할 수 있었음. 한국 대학생은 독도 교육의 체계화를 일본 대학생은 역사적인 근거 아래 독도의 영유권을 판단하고 한일 양국이 독도 분쟁을 하기보다는 독도를 공동 구역으로 지정한 후 한일 간의 갈등을 풀어가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확보함. 이수광 박사를 인터뷰하여 한국이 독도에 관심을 가진 시기와 현재까지의 역사, 독도 민간단체의 동향 및 우리가 추구해야할 미래의 방안 등을 탐구할 수 있었다. 강연을 열어 독수청명의 지난 노력과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학우들 앞에서 나눌 수 있었다. '독도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두 곳의 동아리와 한일의 입장을 나눠 토론한 결과 한일 양국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근거는 한국이 매우 우세하나 독도 관련 행사가 일본에 비해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토론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활동의 내용들을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양정 독도 자료집을 편찬하여 독수청명의 기본 지식의 초석을 마련함.

#### ○ 향후 계획

독수청명을 확대 강화하여 이수광 총재님이 제시한 독도탐방대를 공식적으로 창설하여 작년까지 이어온 독도 및 울릉도 탐방을 지속시키고 우리역사탐구반, Agora 양정청소년의회 등의 동아리와의 연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매년 혹은 몇 달 간격으로 독수청명 자체 제작을 통한 강연 혹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할 예정임. 우리역사탐구반 견학 대상 중 독도체험관을 필수 방문지로 지정할 예정임.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고등학생들과의 독도 회의 계획을 국제교류부와 협의 중임. 독도 홍보영상 제작 작업 확대와 자료집 추가 제작 계획.

####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김솔빈	<p>독수청명에 들어와 독도수호 활동을 전개하며 많은 경험이 있었고 시련도 있었다. 허나 이 과정들은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한 후에는 그저 추억으로 남았다. 독도의 웅장함과 울릉도의 강치 가족 석상이 가장 기억에 남아 느낀 것이 많다. 독도는 한국의 바다 동해의 끝을 지키는 한국의 땅이다. 그 웅장함은 수호자의 면모를 뽐내며 수많은 생물들의 터전으로 오늘도 살아 생동하고 있다. 일본은 그런 독도를, 대한제국을 침략했고 독도의 주민 강치를 살육해 제국주의의 야욕을 채움으로 그들을 멸종에 이르게 했다. 일본이 독도의 주인임을 주장함은 파렴치 함이다. 독도 이외에도 여러 역사적으로 미완된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성을 따짐이 아니라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방향의 전환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을 100일간의 여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p>
원우솔	<p>뱃멀미를 하고 바람을 맞으면서 독도로 향하던 날, 그 곳에서 저는 처음 독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도로 가면서 들었던 독도의용 수비대의 이야기, 안용복의 이야기 등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착한 독도에서 독도를 제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 아름다운 독도의 모습 앞에서 저는 독도를 지키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p> <p>그러던 중 독도 사랑 청소년 역사 대회라는 기회가 제게 왔습니다. 이 대회에서 제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민간인인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민간단체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독도관련 민간단체를 조사하면서 저는 위에 썼던 안용복씨나 독도의용수비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의 독도수호 활동을 보면서, 이 분들에게 감사했고 또 이런 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독도 홍보 활동을 할 때 그들이 잘 모르던 독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치 봉사활동을 하듯이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독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저는 위에 얘기했던 많은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경이로운 감정들을 안겨준 독도 사랑 실천 대회, 만약 앞으로 이런 대회가 있다면 제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지 저는 다시 달려가고 싶습니다.</p>
강정훈	<p>독도수호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대회를 시작할 때</p>

	<p>나는 내가 독도에 대해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 독도 체험관을 방문하고 나서 그런 나 자신이 독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전까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독도체험관에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보면서 나는 독도가 왜 우리의 땅인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 후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활동을 하는 100일 동안 먼저 나는 그동안 몰랐던 독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 갈 수 있었다. 팀원들 가운데 대표로 부산국립해양박물관에 방문하면서 독도의 자연환경, 지리적으로 자세한 위치, 독도를 표기한 역사적 고지도 등을 알아가면서 그동안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한 내가 부끄러웠다. 독도에 관한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마치 독도와 한걸음씩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독도에 관한 활동들은 나에게만 이런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함께 독도 활동을 했던 우리 조원들과 사람들 모두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독도와 함께 활동하면서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갔다. 100일 동안 독도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p>
김호진	<p>원래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왜 대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아했었다. 하지만 100일간의 독도 체험 활동을 하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한 땅이다. 역사책을 읽어봐도, 독도에 대한 기록을 항상 남아있다. 또한 풍부한 생물학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생물들의 보금자리인 풍요의 땅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독도는 시련의 땅이기도 하다. 일제에 우리가 제일 먼저 빼앗긴 영토가 바로 독도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독도는 강치를 포함한 많은 자원을 빼앗겼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도 독도는 우리나라가 혼란한 틈에 일본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주권을 되찾고 독도를 지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향한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독도는 다시 일본에게 빼앗길 것이다. 우리의 독도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p>
우시영	<p>내가 양정고 우리역사탐구반에 합격한 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독도 팀에 들어왔다. 팀에 들어가기 전부터 확실히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지가 세계적으로든, 국내에서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 분들의 희망까지</p>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역사적, 국가의 인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  
날 비롯한 전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뚜렷한 입장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학교 차원에서라도 독도를 알리고 싶었다. 독도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는 이 때, 독도 단체를 조사하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  
을 깨달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태로 이도저도 못  
하고 있었지만 애국심이 투철한 우리 민족은 직접 독도 단체, 블로그,  
활동과 같은 여러 대책을 만들어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온몸으로 국가  
와 세계에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독도 단체에서 오늘도 많은 고생을  
하시며 독도에 모든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시는 독도 단체 및 여러 군  
데로 희생하시는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응원한다.

## 5. 건의사항

○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